

제 목: 2014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0월 CBSI 9.0p 하락한 74.9 기록

- 4개월만에 하락(20개월만에 최대 낙폭),
새 경제팀 경기부양책의 지수 전인효과 4개월만에 종료 -

- 2014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9.0p 하락한 74.9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 전월인 9월에 4년 11개월만에 최고치인 83.9를 기록했음.
 - 그러나, CBSI는 10월 들어 다시 전월비 9.0p 하락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작하기 직전인 6월의 74.5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함. 하락폭도 커서 9.0p 하락은 지난 2013년 2월의 11.1p 하락 이후 최대 낙폭임.
 - 지수 하락의 원인은 지난 3개월 연속 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통계적 반락효과가 작용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공공사 발주가 부진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지난 3개월간 CBSI 상승을 주도했던 제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및 9.1 부동산 대책의 지수 전인 효과가 더 이상은 지속되지 못함.
 - 10월 CBSI 수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지수는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70선 초중반에 머물러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2014년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8.9p 높은 83.8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11월에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10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0월의 실적치가 저조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통상 연말로 접어들면서 발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11월에는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중견업체, 중소기업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상승에 대한 통계적 반락 효과로 전월비 16.0p 하락한 92.3을 기록해 10월 CBSI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1.2p 하락한 78.8을 기록했지만 대형업체 및 중소기업 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음.
 - 중소기업 지수 또한 전월비 9.6p 하락한 50.0을 기록하여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제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중소기업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공사 발주 물량까지 부진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지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2.9, 98.0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인력 및 자재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큰 변동 없이 각각 87.8, 84.1을 기록해 인건비 및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4.9, 78.8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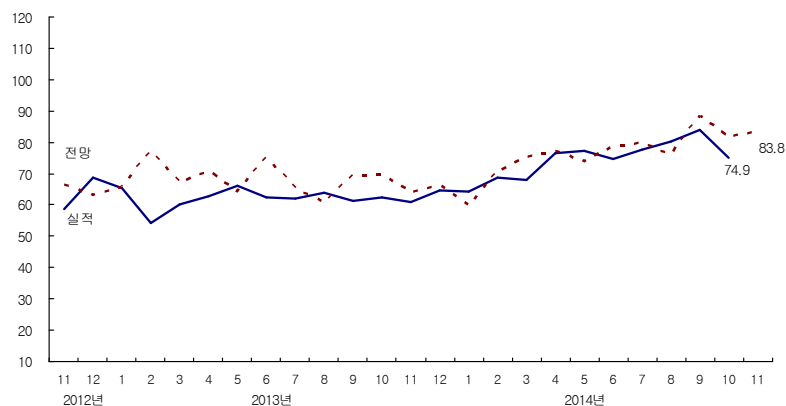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 CBSI 9.0p 하락한 74.9 기록
4개월만에 하락

- 2014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9.0p 하락한 74.9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 전월인 9월에 4년 11개월만에 최고치인 83.9를 기록했음.
- 그러나, CBSI는 10월 들어 다시 전월비 9.0p 하락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작하기 직전인 6월의 74.5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함. 하락폭도 커서 9.0p 하락은 지난 2013년 2월의 11.1p 하락 이후 최대 낙폭임.
- 지수 하락의 원인은 지난 3개월 연속 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통계적 반락효과가 작용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공공사 발주가 부진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지난 3개월간 CBSI 상승을 주도했던 제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및 9.1 부동산 대책의 지수 견인 효과가 더 이상은 지속되지 못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0월 CBSI 수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지수는 기준선(100.0)에 훨씬

떨어지지 못 미친 70선 초중반에 머물러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중견업체, 중소기업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상승에 대한 통계적 반락 효과로 전월비 16.0p 하락한 92.3을 기록해 10월 CBSI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1.2p 하락한 78.8을 기록했지만 대형업체 및 중소기업 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음.
- 중소기업 지수 또한 전월비 9.6p 하락한 50.0을 기록하여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제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중소기업 체감 경기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공사 발주 물량까지 부진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3년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적	전월 전망치	전망
총 합	64.5	64.3	68.9	67.9	76.5	77.2	74.5	77.7	80.2	83.9	74.9	81.8	83.8
규모별	대형	92.9	78.6	84.6	84.6	92.3	92.9	92.3	100.0	92.3	108.3	92.3	100.0
	중견	50.0	67.9	66.7	60.7	75.9	74.1	73.3	75.8	83.3	80.0	78.8	73.3
	중소	47.9	43.4	52.9	56.6	58.8	62.5	55.1	53.8	62.5	59.6	50.0	70.0
지역별	서울	73.2	71.6	73.8	70.4	87.5	85.1	83.7	90.2	89.2	95.4	85.4	82.9
	지방	51.6	52.8	61.7	64.3	66.0	65.7	60.8	58.8	67.4	59.6	80.4	69.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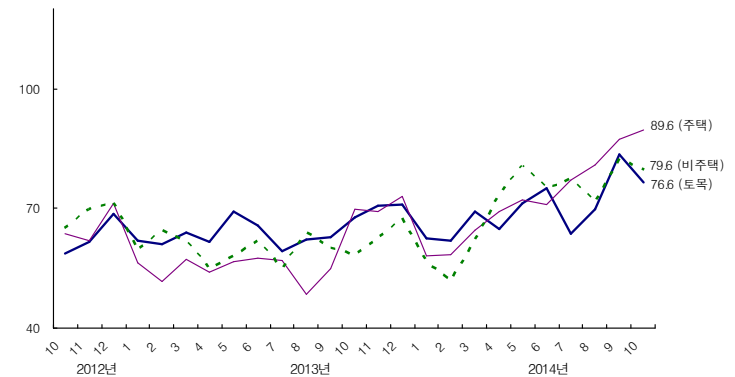
- 2014년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8.9p 높은 83.8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11월에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10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0월의 실적치가 저조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통상 연말로 접어들면서 발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11월에는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10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10.0p 하락한 85.4를 기록하였으며, 지방 업체도 7.4p 하락한 59.6으로 지수가 모두 악화됨.
-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9월 4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95.4를 기록하였으나, 10월에는 10.0p 하락해 한달 만에 다시 80선으로 떨어짐.
-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7.4p 하락한 59.6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지난 7월 58.8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2014년 10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4.2p 상승한 86.4 기록**

- 2014년 10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2p 상승한 86.4를 기록, 2개월 연속 증가함.
- － 공사 물량 지수는 지난 6월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80선인 81.6을 기록한 이후 7월과 8월 혹서기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4.5p, 5.7p 감소해 70선인 71.4로 회복세가 주춤하였음.
- － 9월에 10.8p 상승한 82.2로 3개월 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하였으며, 10월에도 4.2p 상승한 86.4를 기록, 결국 지난 2009년 11월 89.1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 지난 9.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물량 침체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비주택과 토목은 전월보다 감소한 반면, 주택 물량만이 전월 대비 증가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9월 83.4로 지난 2009년 12월 97.3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10월에는 이보다 6.8p 감소한 76.6으로

- 한달 만에 70선으로 하락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2.3p 상승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지난 2005년 6월 91.1을 기록한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89.6으로 90선에 근접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2.6p 하락한 79.6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과 중견 업체가 전월보다 상승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14.8p 상승한 123.1로 전월보다 공사 물량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 주택이 123.1로 가장 높았으며,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115.4, 107.7로 모두 전월보다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5.5p 상승한 78.8을 기록함. 주택 물량 지수가 90.9로 전월 보다 14.2p 증가함. 비주택 물량 지수 또한 전월 70.0에서 75.8로 지수가 개선됨. 다만, 토목 물량 지수는 66.7로 70선 미만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중소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9.6p 하락한 51.9를 기록함.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 대비 17.3p나 하락한 42.3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주택과 비주택 또한 각각 49.0, 51.0으로 전월보다 지수가 하락해 상황이 더욱 나빠짐.

- 지역별로 서울이 전월보다 10.2p 상승한 102.8을 기록해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 지방은 4.6p 감소한 62.4로 지수가 하락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9월 14.6p 상승한 92.6으로 한달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하였는데, 10월에도 10.2p 상승한 102.8로 지난 2009년 11월 103.5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이는 9.1 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주택 물량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한편,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6p 감소한 62.4를 기록, 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함.
- 2014년 1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0월보다 5.4p 하락한 81.0으로 전망함.
- 통상 10월보다 11월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물량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11월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9월과 10월의 회복세가 다소 주춤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공종별로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는 91.1로 10월보다 지수가 2.3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토목은 10월보다 6.8p 낮은 75.2로 전망되었으며, 비주택 또한 10월보다 낮은 79.6으로 전망됨.
 - 결국, 주택을 제외한 토목과 비주택 물량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분석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6.4	123.1	78.8	51.9	102.8	62.4
	전망	81.0	92.3	87.9	60.0	88.0	71.0
토목	실적	76.6	115.4	66.7	42.3	91.2	55.3
	전망	75.2	100.0	66.7	56.0	82.0	65.5
주택	실적	89.6	123.1	90.9	49.0	106.4	65.4
	전망	91.1	123.1	87.9	57.1	108.1	66.4
비주택	실적	79.6	107.7	75.8	51.0	91.1	62.8
	전망	72.8	84.6	72.7	59.2	77.3	66.4

주 : 실적은 2014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11월 예측지수임.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지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2.9, 98.0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인력 및 자재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큰 변동 없이 각각 87.8, 84.1을 기록해 인건비 및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4.9, 78.8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84.9	92.3	90.9	69.2	88.9	78.9
		전망	83.0	92.3	84.8	70.0	85.4	79.5
	자금조달	실적	78.8	84.6	87.9	61.5	84.5	70.4
		전망	80.4	84.6	93.9	60.0	86.1	72.1
인력	수급	실적	102.9	115.4	106.1	84.6	116.2	83.5
		전망	103.7	115.4	109.1	84.0	118.0	83.0
	인건비	실적	87.8	100.0	93.9	66.7	98.0	73.0
		전망	86.6	100.0	90.9	66.0	96.3	72.5
자재	수급	실적	98.0	107.7	103.0	80.8	102.8	90.9
		전망	99.4	107.7	106.1	82.0	104.6	91.7
	비용	실적	84.1	100.0	90.9	57.7	91.8	72.9
		전망	85.3	92.3	100.0	60.4	93.2	74.0

주 : 실적은 2014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11월 예측지수임.